



천년의 숲 품은 친환경 아파트 ‘주목’

아파트의 미학(美學)

서울 강남 도심 한 복판에 ‘숲세권 아파트’가 얼굴을 내밀었다. GS건설의 작품인 방배그랑자이는 입지를 살린 자연 친화적 특화설계로 주목받고 있다. GS 건설은 방배그랑자이를 건설하며 지난 달 ‘2021 대한민국 고효율·친환경 주거 및 건축기자재 대상’ 시상식에서 주거 및 건축부문 대상(환경부장관상)을 수상했다.

최근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방배그랑자이 근처 카페에서 윤영숙 조합장을 만났다. 윤 조합장은 “방배그랑자이는 매봉재산과 우연산 등으로 둘러싸여 있는 숲세권 아파트”라며 “도심에 있지만 자연친화적으로 설계된 아파트”라고 강조했다.

윤 조합장의 안내로 단지 내부 조경 시설을 살폈다. 지난 7월 입주한 새 아파트답게 집들이가 한창이다. 단지 내

<28> 방배그랑자이

조경시설은 매봉재산과 우연산을 단지 내로 연결시킨 특화 조경 ‘천년의 숲’을 필두로 숲세권 아파트 입지를 활용했다. 아파트 단지가 숲으로 둘러싸여 있어 내부는 한적하고 평온한 분위기다.

단지 내 낙수정에서는 시원한 폭포수가 뿐어져 나왔다. 단지 곳곳에 ‘가든라운지’, ‘숲 갤러리’, 도회적인 느낌을 주는 ‘엘리시안 가든’ 등 녹지공간이 풍부한 편이다. 재건축 단지로는 보기 드물게 전용면적 59㎡ 타입에도 4베이로 설계한 게 특징이다.

윤 조합장은 “조경 설계 당시 전국을

다니면서 나무를 골랐다”며 “팽나무는 해남, 소나무는 서산, 태안, 남원 등에서 가져왔으며 보호수로 소사나무 2그루를 심었다”고 했다.

방배그랑자이에는 매봉재산으로 진입할 수 있는 산책로가 연결됐다. 단지

내 정원을 둘러보면서 숲 향기를 자주 맡을 수 있다. 둘러보면 서 매봉재산에 서불어오는 시원한 바람 덕분에 아침, 저녁으로 산책하는

입주민들이 많다는 게 윤 조합장의 설명이다.

발코니에서 바라보는 전망도 훌륭하다는 평이다. 윤 조합장의 안내에 따라 ‘클럽 클라우드’라는 이름의 스카이라운지에 올라 주변을 살폈다. 우연산, 관악산, 매봉재산을 비롯해 서울 전체가

한 눈에 들어오며 강남 일대가 파노라마처럼 펼쳐졌다. 윤 조합장에 따르면 향후 이스카이라운지는 연회장으로 사용할 예정이다.

커뮤니티시설은 단지 내 대형 피트니스센터, 프리미엄독서실, 북카페를 조성했다. 주민들의 주거생활의 편리함을 도모하기 위해 실내영화관, 클라이밍이 가능한 다목적 체육관도 마련했다. 주차공간은 가구당 2대다.

이밖에 방배그랑자이는 GS건설이 국내 최초로 개발한 미세먼지 걱정없는 환기형 공기청정 시스템 시스클라인이 도입됐다. 음식물쓰레기 처리도 자동화로 설계된 게 특징이다.

한편 방배그랑자이는 최고 20층 8개 동, 총 758가구 규모로 조성됐다. 지하철 2호선 방배역이 걸어서 5분거리며 교육시설로는 방일초·이수중·서초중학교와 서울고·동덕여고·상문고등학교 등이 가깝다.

/정연우 기자 ywj964@metroseoul.co.kr



방배그랑자이 단지 내 조형물.



방배그랑자이 단지 내 야외 휴게시설 전경. /사진=손진영 기자 son@

버스터비 YAP TV 와 함께하는 메트로 뉴스



- ▲ 김 총리 “내달 4일 적용될 거리두기 다음주 논의…일주일 바로미터”
- ▲ 접종완료자, 변이 감염자 접촉해도 증상 없으면 ‘자가격리 면제’ /사진 뉴시스

- ▲ 소아청소년·임산부 접종계획 다음주 월요일 발표
- ▲ 집유 중 사고난 장제원 아들…“이번엔 실형 가능성 커”



- ▲ 서울시-한국수자원공사, 잠실수중 보에서 친환경 소수력 발전 /사진 뉴시스
- ▲ 목욕탕·PC방·술집 등 집단감염 잇따라…당국, 전국확산 촉각